

가을야구 갈 길 먼데…KIA 정해영, 안정감 찾아야



후반기 8경기서 2패 3세이브 평균자책점 7.71

블론세이브 6개로 공동 3위…구속 저하 문제도

KIA타이거즈 마무리투수 정해영이 부진의 늪에 빠졌다. 뒷문이 불안하자 팀 역시 좀처럼 반등 기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KIA는 지난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두산베어스와의 주말 2차전 경기에서 3-4 패배를 기록했다. 이번 패배로 두산과의 주말 경기는 루징시리즈가 확정됐다. 더욱이 이날은 경기 후반 역전을 이뤄냈음에도 재역전패를 당한 것이 뼈아팠다.

1-2로 끌려가던 KIA는 9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1사 상황 타석에 오른 패트릭 위즈덤이 상대 김택연의 2구째 142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솔로포를 터트렸다. 비거리 130m의 대형 타구였다. 기세를 탄 KIA는 2사 2루서 김태균이 역전 적시 2루타를 폭발시키면서 3-2로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9회말 KIA는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무너졌다. 시작과 함께 정해영이 등판했다. 정해영은 상대 선두타자 박준수를 뜬공으로 처리했으나, 김기연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이어 연달아 볼 4개를 던지면서 케이브를 내보냈고, 위기가 찾아왔다. 이동걸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 분위기 전환을 노렸으나 효과는 없었다. 정해영은 상대 안재석에게 중전 안타를 맞아 1사 만루를 만든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고작 0.1이닝만 소화한 채 마운드를 내려오는 최악의 강판이었다.

조상우가 대신 마운드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팀은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조상우는 상대 김인태에게 우전 적시 2루타를 맞으면서 3-4로 경기가 끝이 났다.

KIA는 앞서 15일 두산전에서도 9회말 1점의 리드를 정해영이 지키지 못했고, 결국 11회 연장전 끝에 5-6 패배를 당했다. 물론 이날 경기에서는 포수 한준수의 실책

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정해영이 폭투를 기록한 것이 원인이었다.

정해영의 컨디션 난조는 시즌 중반부터 불거졌지만, 후반기 들어서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7월에는 그의 부진이 역전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7월 10일 한화전에서는 1이닝 2실점으로 팀이 2-3 패배를 당했다. 이어 후반기 첫 등판인 22일 LG전에는 0.1이닝 4실점을 기록, 팀은 7-9 패배를 떠안았다.

KIA는 중간마다 정해영에게 긴 휴식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후반기 성적은 8경기 7이닝 2패 3세이브 평균자책점은 7.71.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2.14에, 피안타율 또한 0.382로 매우 높다.

구속 저하라는 이상 징후도 발견됐다. 야구 통계사이트 스탯티즈(STATIZ) 기준 지난 16일 두산전 정해영의 평균 구속은 142.8km에 그쳤다. 140km대 후반에서 150km 초반의 공을 던졌던 평소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현재 프로야구는 매우 순위가 뒤바뀌는 접전이 진행 중이다. 특히 중위권 싸움은 5개 팀 이상이 몰려들 정도로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마무리투수의 부진은 치명적이다. 이미 KIA 블론세이브 후반기 평균자책점 5.20으로 9위에 위치했다. 최근 NC다이나믹스와의 3대3 트레이드로 투수 김시훈, 한재승을 수혈한 뒤 반등하는듯했으나 결국 제자리다.

사실상 정해영의 대체 자원이 없는 상황. 그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팀의 가을 야구 진출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정해영이 다시 정상 컨디션을 찾으며 팀 승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해영은 17일 두산전에서 앞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서구청 펜싱팀, 대통령배 남녀 개인전 ‘동반 석권’

에페 결승 김상진·최은숙 각각 ‘금’

광주 서구청 펜싱팀 김상진과 최은숙이 ‘제65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발대회’ 에페 개인전에서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김상진은 지난 15일 강원 흥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에페 결승전에서 손민성(화성시청)을 15-13으로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대회 64강에서 김찬우(익산시청)를 15-10, 32강전서 윤영도(서울체고)를 15-14, 16강전서 송제현(대전대)을 15-10, 8강전서 남연호(한국체대)를 14-13, 4강전서 박상영(울산시청)을 기권승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후 손민성까지 제압하며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최은숙은 같은 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송세라(부산시청)를 15-13으로 누른 뒤 금메달을 들어 올렸다.

그는 대회 64강전에서 이예빈(경남펜싱협회)을 15-8, 32강전서 김소연(한국체대)을 15-9, 16강전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5-7, 8강전서 이혜인(울산시청)을 15-14, 4강전서 양승혜



광주 서구청 펜싱팀 김상진(왼쪽)과 최은숙(오른쪽)이 ‘제65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발대회’ 에페 개인전에서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체대)를 15-13으로 연파했다. 이어 여자 펜싱 강사 송세라마저 따돌리며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서구청 펜싱팀은 창단 이후 최초로 전국 대회 남녀 개인전 동반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박광현 서구청 펜싱감독은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직원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개

인전 남녀 동반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도 고맙다”며 “앞으로 열린 전국대회는 물론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구단 최초 셔드 유니폼 출시

프로축구 광주FC가 구단 최초로 셔드 유니폼을 선보인다.

17일 광주FC에 따르면 켄 파트너인 스포츠 브랜드 골스튜디오와 함께 2025시즌 셔드 유니폼을 출시한다.

이번 셔드 유니폼은 광주의 상징인 ‘빛’을 콘셉트로 삼아 구단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필드 유니폼은 구단의 세 번째 컬러인 네이비와 옐로우의 선명한 대비로 절제된 카리스마를 표현하고 있으며, 골키퍼 유니폼은 오렌지와 옐로우의 조화로 석양빛처럼 따뜻하고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특히 골키퍼 유니폼의 경우, 김경민 선수가 광주의 석양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직접 컬러를 제안해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선수의 애정과 도시의 감성이 함께 녹아든 유니폼으로 평가된다.

디자인 디테일도 주목할 만하다. 유니폼 목 뒤에



는 구단 엠블럼에 위치한 ‘5개 별빛’과 골스튜디오의 슬로건 ‘LIVE THE GOAL’을 결합한 엠블럼이 새겨졌으며, 전면에도 5개 별빛을 상징하는 그래

구단 정체성 ‘빛’에 영감…선수 참여 의미 더해
오늘부터 판매…23일 골스튜디오 데이스 첫선

픽이 은은하게 배치돼 상징성을 더했다.

기능성 또한 놓치지 않았다. 유니폼 측면에는 메쉬 원단을 사용해 통기성을 높였고, 흡수속건 및 방균 기능을 갖춘 고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선수들의 실전 퍼포먼스를 지원한다.

광주는 23일 열리는 27라운드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골스튜디오 브랜드 데이’를 개최하며, 이날 셔드 유니폼을 선수들이 최초로 착용하고 팬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브랜드 데이 역시 구단 최초의 시도로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정판대로 진행되는 셔드 유니폼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구단 공식 온라인스토어와 골스튜디오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BQL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3일 강원전 홈경기 당일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행복나눔 골프교실’ 성료

2주간 골프 프로그램 학습…엘리트 선수 강사 통해 직접 운동

광주시체육회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2025 행복나눔교실’ 사업 중 골프교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GPC생활체육광주센터(삼내골프장)에서 진행한 행복나눔골프교실에는 총 3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골프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골프교실은 올해부터 대한골프협회와 연계해 골프 강습에 대한 전문성을 더했다. 골프협회에서는 사업에 운영되는 학생용 골프 클럽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하며 참가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였다.

특히 골프 프로그램 기간 중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데이를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호평을 받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

을 형성하는 등 유익했다고도 평했다.

시체육회는 광주시골프협회 추천 엘리트 선수가 강사로 참여해 엘리트체육 우수인력이 생활체육 보급 사업에도 활동함으로써 스포츠 선순환 구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행복나눔스포츠교실을 통해 스포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쓸 것이며, 우수한 강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종목별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배워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12월까지 2025 행복나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골프, 배구, 빙상, 스쿼시 등 총 11개 종목 13개 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들은 매주 1~3회 강습에 참여하게 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버디 ‘31개’ 홍정민, KLPGA 72홀 최소타 우승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제패…시즌 2승에 상금랭킹 1위 도약

‘리틀 박세리’ 홍정민이 12년 묵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72홀 최소타 기록을 갈아치우고 시즌 2승 고지에 올랐다.

홍정민은 17일 경기도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 기을·겨울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최종 합계 29언더파 259타로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서 홍정민이 쏜낸 259타는 지난 2013년 김하늘이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적어낸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우승 기록(265타)을 6타나 넘어선 신기록이다.

지난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자 유해관과 작년 크리스토프앤써 KLPGA 챔피언십에서 이정민이 김하늘과 똑같은 265타를 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홍정민은 가볍하게 새 기록을 작성했다.

29언더파 역시 종전 김하늘, 유해관, 이정민의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23언더파)을 훌쩍 넘어선 신기록이다.

홍정민은 이번 대회에서 버디를 무려 31개나 잡았다.

최종 라운드 5번 홀(파4) 보기가 아니었다면 KLPGA 투어 최초의 72홀 노보기 우승 기록도 세



을 뻗었다.

지난 5월 메이저대회인 크리스토프앤써 KL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던 홍정민은 3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통산 우승은 3승으로 늘어났다.

출전한 대회 16개 가운데 절반인 8개 대회에서 톱10에 오른 홍정민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 상금랭킹 1위(8억9892만원)로 올라섰다.

대전에서 태어나 자란 홍정민은 동향 출신으로 세계적 스타가 된 박세리와 스윙이 비슷해 어릴 때부터 ‘리틀 박세리’로 불렸다.

연합뉴스